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13일 수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41호

호전광 이회창역도를 그대로 놔두면 전쟁이 터진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성명(대변인 보도 20호) - 주체 91(2002)년 3월 13일

전쟁미치광이 이회창역도를 그대로 놔두면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회창역도는 미국호전분자들과 결탁하여 이 땅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극악한 호전광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자주평화통일의 기운이 고양되자 이회창역도는 2000년 6월 18일 북에 대량살상무기와 핵, 미사일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실제로 변한 것이 없다고 지껄였다.

그 며칠 후에는 어느 군부대를 찾아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남북대결과 전쟁열을 고취시켰다.

역도는 그해 12월 15일 재향군인회 회원들앞에서 남북관계의 ≪이중적 구조≫니 ≪적화통일≫이니 뭐니 하며 북에 대한 ≪주적론≫을 떠들어대었다.

2001년에는 정초부터 ≪주적론≫을 연발하면서 북은 여전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떠들며 대북적대감정과 호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런가하면 그해 3월 12일에는 ≪무력도발포기≫는 북이 말로 약속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북의 군사력감축과 휴전선일대의 상용무기후방배치 등 도발적인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일방적 양보불가론≫, ≪이북불변론≫, ≪과거사죄론≫을 들고나오며 첨예한 남북대결을 불러일으켰다.

2001년 6월 한달동안에는 이북 무역선의 통과와 관련하여 강력대응과 무력사용을 선동하며 극도의 전쟁광기를 부리기까지 하였다.

친미사대역적 이회창은 올해 1월 국내에서의 반북전쟁소동으로도 성이 안차 미국을 돌아치며 남북관계진전을 정면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이북을 걸고들며 대북강경정책의 도수를 더욱 높여줄 것을 애걸하였다.

심지어 ≪재래식무기축감≫이니, ≪대량살상무기개발중단≫이니, ≪핵개발대비≫니 뭐니 지껄여대며 통일후 ≪미군영구주둔≫을 구걸하는 극악한 매국망발까지 줴쳐대었다.

역도는 지난 2월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느니, 이북은 ≪미사일문제≫해결을 위해 즉각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느니 하고 지껄여대었다.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비호하며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조작하는 이회창역도의 반북대결책동은 현재 진행중인 친일매국행각을 통해서도 어김없이 반복재연되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뮈니케 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내외호전광들인 부시와 이회창의 전쟁대결책동으로 인하여 경색국면을 넘어 전쟁접경으로 치닫는 엄중한 상황이 되었다.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호전광 부시의 특등사냥개가 되어 남북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쳐돌아가고 있는 이회창역도야말로 권력욕에 환장한 전쟁미치광이이다.

이회창역도의 그간 호전행각으로 볼 때, 이런 호전분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6.15공동선언은 파기되고 결국 조국반도는 핵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고 말 것이다.

오늘 대권에 피눈이 되어 민족멸살의 전쟁열을 고취하는 극악한 호전광 이회창역도를 정치무대에서 제거하는 것만큼 구국운동에서 시급한 문제는 없다.

반통일호전광이고 친미사대매국노이며 부정부패개쪽인 이회창역도는 반드시 민중과 역사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열혈청년투사들은 국민대중과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전반미투쟁과 함께 극악한 호전분자 이회창역도를 퇴출시키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이다.

군부대를 찾아간 이회창

한나라당 내분 갈수록 심화

이회창 총재의 당무퇴진 등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안 비주류 인사들의 주장에 11일 홍사덕 의원이 가세하고, 소장 원내외 지구당 위원장들의 모임인 ≪미래연대≫도 이회창 총재에게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한나라당 내분사태가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불참한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 분열이 계속되면서 집권 가능성이 심각하게 손상받고 있다≫며 이 총재의 당무퇴진과 최병렬 부총재의 총재권한대행 임명, 집단지도체제 즉각 도입 등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런 요구조건을 이 총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탈당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영 부총재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재단 전원의 퇴진과 당을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꾸릴 것을 거듭 촉구했다.

양상우기자
인터넷 한겨레 2002/03/11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1 호전광 이회창역도를 그대로 놔두면 전쟁이 터진다
1 단신 – 한나라당 내분 갈수록 심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세기와 더불어
4 4장 3절 카륜회의 (2)

칭송
6 바닷가초소에서 (2) / 보약
6 조선민중에게 연대를

한국민족민주전선
7 봄철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11일
8 투쟁의 봄을 맞은 청년학생들에게
8 이회창은 미국의 대변자인가

조선중앙통신
9 주체91, 3월 11일 보도
10 4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 노동신문사설 3월 11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 사상적 대결을 승리에로 조직영도

아리랑뉴스

12 30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12 LPP관련 미대사관 1인시위 시작
12 F-15K 구매압력 뿌리치고 자주국방 이룩해야
13 부시정부의 핵정책 모순
13 미국 패권정책 러 · 중 등돌려
13 친미외교 · 의혹사건으로 네티즌에게 찍힌 이회창
14 사회단체, 종교인 등 테러방지법 반대 천명
14 전국여성노동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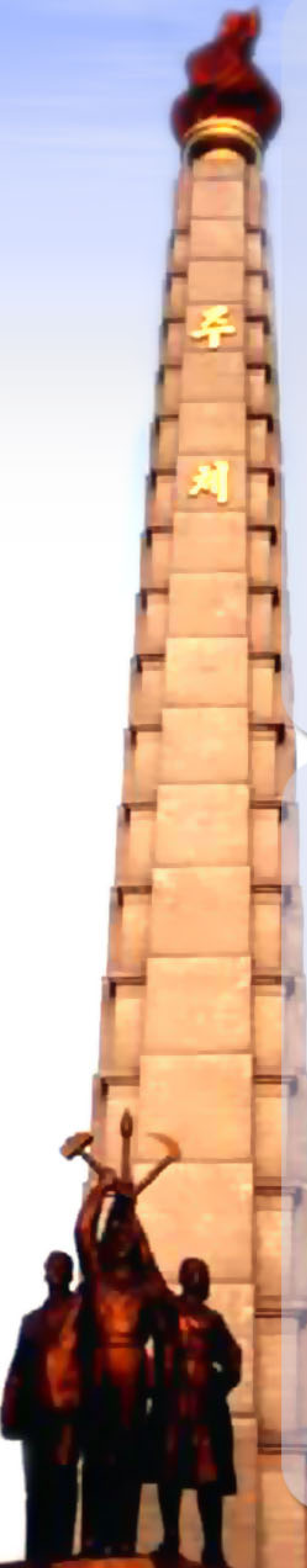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운동강좌
15 반전반미투쟁과 6.15실천투쟁의 결합 (4)

광고
15 신입생들에게 권고하는 교양서 10선 (1)

조국통일3대헌장
16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1)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2)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앞에서 한 연설 / 주체79(1990)년 8월18일



우리가 인텔리를 혁명의 동력으로 내세우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리 식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인텔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여러곳에 흩어져있는 인텔리들을 다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남조선에서도 적지 않은 인텔리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지만 **김일성**장군은 나라를 해방하고 자주적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다 **김일성**장군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남조선에서 학자들 뿐 아니라 예술인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찾아온 인텔리들을 밑천으로 하여 평양에 전문학교도 세우고 종합대학도 창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철도운수부문에서 김회일운동을 벌여 철도수송을 발전시키면서 기관사를 많이 키워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영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우리 자신이 키워낸 근 150만의 인텔리대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키워낸 인텔리들은 지금 40대, 50대, 60대의 일군들로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마력을 내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텔리대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0만의 인텔리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재부이며 커다란 자랑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인텔리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간 우리 당의 정책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도 우리 식으로 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도 우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한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경험은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우리 일군들에게 다른 나라의 경험도 배워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이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남의 것은 씹어보고 구미에 맞으면 삼키고 맞지 않으면 뱉아버려야 한다고 말하여줍니다. 우리 일군들은 이러한 자주적인 혁명정신으로 교양되였기 때문에 무슨 일에서나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 것을 덮어놓고 본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일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결하는 길은 바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전민련≫과 ≪전대협≫을 비롯한 진보적인 단체들과 광범한 인민들이 자주, 민주, 조국통일의 구호를 들고 투쟁하고 있는데 이 구호가 매우 정당합니다. 자주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남조선사회를 자주화하자는 것이며 민주는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자는 것이며 조국통일은 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북과 남은 서로 먹거나 먹히울 수도 없으며 또 한민족끼리 서로 먹기 위한 동족상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북과 남이 연합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을 남조선인민들도 지지하고 해외동포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남조선의 민주인사 문익환목사가 평양에 왔을 때 그와 담화하면서 우리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금 북에는 사회주의제도가 존재하고 남에는 자본주의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공존의 원칙에서 그대로 두며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지역자치제를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통일국가의 수반은 대통령이나 주석이라고 해도 좋고 의장이라고 해도 좋은데 북과 남이 각각 1년씩 윤번제로 할 수 있다, 연방국가는 다른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중립국가로 되어 자주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문익환목사는 나의 말을 듣고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이 아주 훌륭한 통일방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문익환목사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서로 견해가 일치하였으므로 담화를 오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문익환목사가 돌아갈 때 그의 숙소에 찾아가서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이 당신을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나가도 일없겠는가고 하였더니 그는 아마 몇달동안 감옥에 들어가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문익환목사가 남조선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를 비행장에서 체포하여 구금하였으며 그에게 7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하였습니다. 70고령의 늙은이에게 7년간의 징역형을 들씌운 것은 결국 감옥에서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익환목사에게 그처럼 가혹한 형벌을 들씌운 것을 보면 남조선당국자들이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다른 쪽에 강요하여서는 북과 남을 통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조선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한다면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서부독일,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려고 한다면 남조선에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들이 우리를 반대할 것이며 또한 남조선에 있는 민족자본가들도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연방제형식의 통일국가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쏘련, 중국, 일본과 같은 큰 나라들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쏘련과 중국은 사회주의나라이고 일본은 자본주의나라입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연방국가는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이나 중국의 위성국으로 되어도 안되며 자본주의국가인 일본이나 미국의 위성국으로 되어도 안됩니다. 연방국가는 중립국가로 되어 자주적으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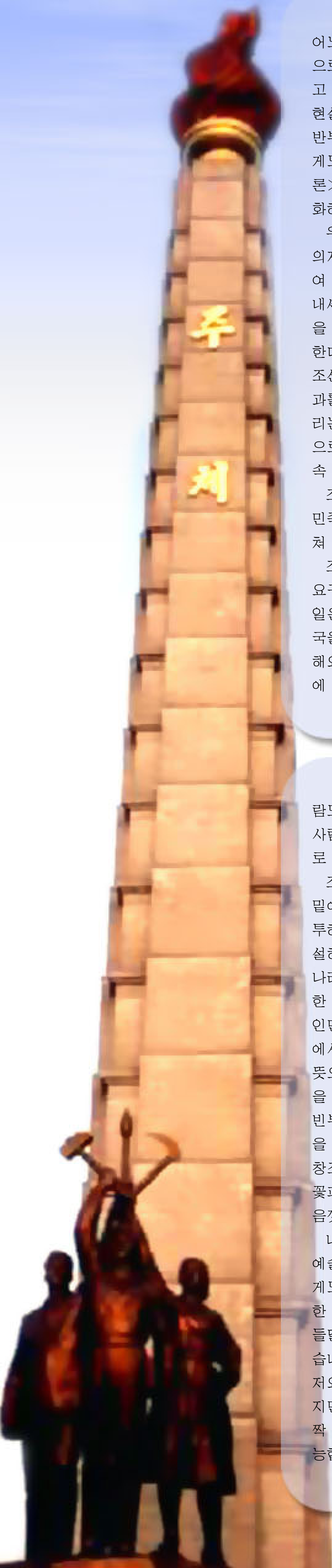
통일된 연방국가가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수상이었던 크라이스키가 몇해 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그는 나에게 통일된 조선이 중립국가로 되는데 대하여 자기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중립국가로 만들던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중립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헐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레이건이 미국대통령으로 있는 조건에서는 조선이 통일되어 중립국가로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 유연한 정책을 쓸줄 아는 사람이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중립국가를 만들 작정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된 다음 중립국가로 되는데 대하여 쏘련과 중국은 찬성할 것입니다. 일본도 속으로는 어떻든 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잘하면 미국도 찬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재미동포들이 돌아가서 미국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조선을 절대로 공산화하려고 하지 않으며 남조선에 투자한 미국자본을 다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방국가를 창립하여 중립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인식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제도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개별적 계급이나 계층의 요구와 이익보다는 응당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위에 놓아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제도를 타방에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제도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 세워놓은 사회주의제도를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도통일론≫은 본질에 있어서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여 ≪두개 조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을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허용한다면 민족의 분열을 고정화하게 되고 남조선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내맡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역사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은 하나다.≫라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숙망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 위업이며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개별적 계급이나 계층의 요구와 이익보다는 응당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위에 놓아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해방직후 우리와 사상과 정견을 달리하는 수많은 남조선인사들이 우리의 호소에 호응하여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잘 싸웠습니다. 여운형선생은 우리와 손을 잡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적들에게 희생되였습니다. 여운형선생은 여러번 우리를 찾아왔는데 한번은 자기의 아들딸들을 장군님께 보내겠으니 잘 키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운형선생과의 의리를 지켜 그의 아들딸들을 맡아 키워주었으며 두 딸은 외국에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새 민주조선 건설도 애국적 민주역량을 묶어세워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하였습니다. 나는 해방직후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한 연설을 우리 일군들이 비에 새겨 개선문옆에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는 것이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과 단결하려고 합니다.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자본가들과도 단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이익을 배반한 친미파와 친일파들 그리고 외세와 결탁하여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매판자본가들을 반대하지 민족자본가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참가한 대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족대단결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모두다 조선의 참된 애국자, 조국통일의 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이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면 조국에 대하여 잘 알고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는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다보니 우리 말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비록 말은 몰라도 조선사람의 넋은 잃지 말아야 하며 조국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인민들은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영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간고분투하여 우리 식의 사회주의사회를 훌륭히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 살 걱정을 모르고 빈부의 차이가 없이 고르롭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꽃피우고 있으며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8월15일에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을 보고 그 공연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라고 하였습니다. 공연에 출연한 유치원어린이들은 다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인데 그들의 예술적 기량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서부독일 여류작가 루이저 린저와 공연을 함께 보면서 그에게도 말하였지만 어린이들의 예술적 재능이 이처럼 활짝 꽃펴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많은 부자집 아이들은 예술을 배우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돈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예술을 배우려고 하여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져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에 출연한 네쌍동이어린이들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국가에서는 그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 2층짜리 독집을 지어주고 담당교양원과 담당의사를 붙여 돌보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식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할바없이 우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미국이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그 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많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며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썩고 병든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호화롭게 살지만 반면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고 집이 없어 거리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살인과 강도,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에이즈병이 제일 많이 퍼져있는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이 자리에 미국에서 온 동포들도 있는데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본따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최근에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예견치 않았던 사태들이 일어나자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무대에서 더욱더 거만하고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헌병노릇을 하면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자유화바람이 불고 동란이 일어날 것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든든합니다. 우리 나라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어 있기때문에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한데 대하여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끝까지 지켜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리라고 믿습니다. (끝)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3. 카륜회의 (2)

우리가 이런 로선을 내놓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고전에 없는 규정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그런 사람들은 공신주의자들이 로동자, 농민을 제외한 다른 계층들과 동맹을 맺겠다는 것은 몽상이라고 하였으며 종교인이나 기업가 계층들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고 하였다. 화요파에서 김찬이 한때 국민부의 몇몇 인물들과 거래하였다는 리유로 그들 조선공산당 만주국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그런 관점때문이였다.

민족주의자들 중에도 공산주의자들을 랭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민족주의가 금물이였고 민족주의운동내부에서는 공산주의가 금물이였다. 이런 경향은 민족력량을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두개 진영으로 분렬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리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였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20년대 중엽부터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진영의 합작을 위한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1927년에 신간회의 창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신간회의 출현은 리념이 달라도 민족을 위한 길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 사변으로 민중은 누구나 이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과 그에 매수리용된 개량주의자들의 분해작용으로 하여 이 단체는 1931년에 그 해체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력량이 애국이라는 대전제로 견고한 결합을 이룩했더라면 설사 안팎의 파괴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처럼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신간회의 해산으로 모처럼 성사되었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합작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였다. 민족을 우위에 놓지 않고 리념만 절대화하게 되면 진정한 합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민족해방이라는 대전제를 첫 자리에 놓는다면 어떤 계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나의 견해였다.

우리는 이런 립장을 가지고 해방후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선생과도 합작하였고 지금도 모든 겨레의 리성을 향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남는 것은 외세와 매국노들뿐이다. 민족의 대단결이 그처럼 귀중한 지상의 과제이고 경륜이기에 우리는 반공일선에서 우리에게 총부리를 맞대고 평생을 살아온 최홍희, 최덕신 선생이 평양으로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혈육의 정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때 나는 최덕신선생에게서 북에 사는 사람이건 남에 사는 사람이건 민족을 첫 자리에 놓고 통일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민족이 있고야 계급이 있고 주의도 있지 않겠는가.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는 해서 뭣하고 민족주의는 해서 뭐하며 ≪하느님≫은 또 믿어서 뭣하겠는가고 하였다.

우리는 카륜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모색하던 60여년전에도 역시 그렇게 부르짖었다. 정치는 그릇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지 못하며 정치가가 도량이 넓지 못하면 대중이 그 정치가를 외면해버린다.

보고에서는 당창건문제를 비롯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나는 보고초안이 준비되자 그것을 곧 카륜회의에 참가하려고 여러곳에 모여온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들의 토의에 붙이였다. 그때 우리는 낮에는 벌에 나가 일을 하면서 논밭머리와 무개하의 버들숲에 모여 토론하였고 밤이면 진명학교 숙직실에서 낮에 종합된 의견들을 놓고 한조항 한조항 토의를 심화시켰다.

대중적인 토의과정에 제출된 의견들 가운데는 흥미있는 현실적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조선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론쟁이 생기였다. 보고에서 밝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규정을 두고 론의가 분분했다. 론쟁의 초점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새로운 성격규정이 혁명의 보편적 원리나 합법칙성에 모순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때 당시의 청년들은 근대력사를 변혁시킨 혁명가운데는 부르죠아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주의혁명도 아니고 부르죠아혁명도 아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계급관계와 우리 혁명앞에 제기된 과업으로부터 얻어낸 결론이였다. 조선민족이 수행해야 할 가장 절박한 혁명임무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우리 인민을 얽매어놓고 있는 봉건적 관계를 청산하며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였다. 이런데로부터 우리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였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형태에 억지로 틀어맞추어 혁명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면 교조를 범한다. 형태가 선차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선차이다. 설사 고전에 없는 정식화이고 남들에게 없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규정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서슴없이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 태도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더니 대표들은 리해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제일 론의가 활발했던 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과 관련된 문제였다. 민족통일전선전략과 관련된 문제는 그 당시 리론실천상으로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로 공인되고 있었다. 국제당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실패한 것을 리유로 통일전선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밀몰아 개량주의자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심스럽게 대하였다.

큰 용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때에 민족통일전선정책을 로선으로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런 문제를 로선으로 제기하면 국제당의 립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때 동무들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아버지는 지주인데 그의 아들이 혁명을 지지해나서는 경우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본가로서 독립자금도 많이 내고 독립군에 대한 물질적 보장도 많이 했는데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면장으로서 왜놈들하고는 잘 섭쓸리고 인민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도 혁명에 포섭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본인의 사상동향을 위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때의 이런 견해가 그후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구체화되었으며 해방 후 20개조정강에서 국가정책으로 명문화되었다. 우리가 카륜에서 내놓은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은 그 후 실생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동무들의 의견은 보고를 완성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카륜회의가 정식으로 열린 것은 1930년 6월 30일 밤이였다. 카륜의 동무들은 진명학교 교실에다가 회의장을 준비하였다. 대표들을 위해 교실바닥에 초물방석들을 깔고 천정에는 여러개의 남포등을 매달아놓았다.

첫날 회의는 나의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김원우

다음날부터는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강가나 버들숲에서 조단위로 혹은 대표전원이 모여서 보고에서 제기된 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론의하였다. 아주 독특한 회의방식이었다. 카륜의 혁명조직들이 부락의 경비를 철통같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소년탐험대원들이 회의의 전기간 특히 우리를 잘 보호해주었다.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부대가 중부만주지방에 집결되어있다는 것을 내탐한 일제는 우리의 활동구역인 장춘현, 회덕현, 이통현 일대에 밀정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다. 밀정들 중에는 내 사진까지 들고 다니며 행처를 탐문하는 자들도 있었다. 만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령사관의 끄나불들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밀정들을 통하여 길림을 중심으로 한 만주지역에 종래의 공산주의자들 나타나 력량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내탐한 일제는 처음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지도핵심을 잡아내기 위해 우리의 뒤를 집요하게 추격하였다. 우리가 소문을 크게 내지 않으면서도 터를 넓게 잡고 인민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놈들도 우리를 만만치 않게 본 것 같았다.

그 때 카륜에서 부락의 경비조직을 책임지고 소년탐험대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통솔한 사람은 김원우였다. 그는 회의장에 앉았다가도 슬그머니 밖에 나가 마을을 돌아보면서 경비상태를 알아보군 하였다. 내가 일에 몰려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명학교 교실에서 밤을 새울 때면 그도 밖에서 우리들의 신변을 지켜주느라고 밤을 밝히었다. 어떤 날에는 학교 숙직실 부엌아궁이에서 감자를 구워가지고 우리에게 밤참으로 내놓군 하였다.

카륜, 고유수, 오가자 등지를 개척하는 데서 김원우의 공로가 컸다. 그는 길림에서 청년학생운동을 할 때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우리는 1928년 봄에 장춘지방의 농촌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김원우를 파견하였다.

그 때 김원우는 카륜의 진명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카륜과 고유수 일대를 돌아다니며 청년들을 교양하였다. 1930년 봄부터는 차광수를 도와 주선혁명군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도 참가하였다. 김원우가 얼굴이 곱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녀자옷을 입히고 현균과 부부간으로 ≪짝≫을 무어주어 지하공작에 보낸 적도 있었다.

김원우는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후 무기를 구입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몇해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옥중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견결하게 잘 싸웠다. 김원우는 전후시기 안팎의 정세가 복잡할 때 지방에서 당의 로선을 옹호하여 싸우다가 종파분자들에게 잘못되었다. 그 당시 종파분자들은 당에 충실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해하였다. 김원우의 본명은 변묵성이다.

카륜이 우리의 믿음직한 활동기지로 되고 우리의 리념을 실현하는 혁명촌으로 전변된 것은 김원우, 김리갑, 차광수, 김혁과 같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마을을 개척하기 위해 일찍부터 피타는 노력을 해온 결과였다. 우리가 이 고장에 오기전까지만 해도 이곳 사람들은 남도패와 북도패로 갈라져 서로 등을 지고 살았다. 남도패가 논밭을 일쿠느라고 물목을 막으면 북도패가 자기네 논이 말라버린다고 하면서 삽을 들고 달려가 그 물목을 터뜨려놓군 하였다.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북도패와 남도패로 갈라져 한데 어울려 놀지 않는 서글픈 대치상태까지 빚어졌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김혁, 김원우, 김리갑, 장소봉등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들은 군중을 설복하여 패싸움을 청산하고 카륜에 여러 가지 대중조직들을 내왔으며 학교를 세워 면비교육도 실시하였다. 대표들은 7월 2일 밤 진명학교 교실에 다시 모여 회의를 계속하였다. 그날 밤 분공안을 발표하고 회의를 결속하였다.

차광수

회의가 끝날 무렵에 사회를 담당하고 있던 차광수가 집행식에서 벌떡 일어나 격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그는 ≪덜렁광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울 만큼 덜렁거리기도 하고 흥분도 잘하는 동무이지만 그런 때에도 리성만은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격정에 넘치는 웅변으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희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내두르며 웨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좌절을 당했다고 모두가 가슴치며 통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새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고고지성을 울리었다.
려명이 종소리와 함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궤도를 따라 매진할 것이다.

동무들, 즉각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판갈이싸움에 떨쳐나서자!≫

우리는 그 연설을 듣고 모두 환성을 울리면서 ≪혁명가≫를 불렀다. 우리가 카륜에서 이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길림시절에 이미 청년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 립장과 태도를 확립하고 공산주의운동의 새 길을 개척해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투쟁의 나날에 심어지고 옥중에서 무르익힌 그 사상과 립장을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을 뿐이다.

그것이 곧 우리 혁명의 로선으로 되고 지도사상으로 되었다. 우리가 그 론문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면 모두가 주체사상을 핵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그후 항일혁명투쟁을 비롯한 여러 단계의 혁명을 거쳐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 속에서 부단히 발전풍부화되어 오늘과 같이 사상과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하나의 철학사상으로 되었다. 해방후 우리가 주체를 세울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은 전후시기 사회주의기초건설을 할 때였다.

1955년에 나는 당선전선동부문 일군들 앞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울 데 대한 연설을 하였는데 이것인 곧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문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주체를 세울 데 대해서는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것이 창시되게 된 경위, 그 사상을 어떻게 구현해왔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외국인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여러차례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인민이 그 사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혁명실천에 구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그후 **김정일**비서가 그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론문으로 세상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카륜회의 후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그 회의에서 내놓은 로선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적들은 우리는 ≪창해일속≫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뒤에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인민의 바다가 있었다. 우리가 무슨 로선을 내놓기만 하면 인민들은 그것을 쉽게 리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대오에 수천수만명의 아들 딸들과 형제자매들을 보내주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령하 40도를 오르리내는 혹한 속에서 15년동안이나 발톱까지 무장한 강적과 싸워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이라는 강력한 성새가 있고 인민대중이라는 무한대의 창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끝)

주체사상탑

부주제조각-무병장수

부주제조각-배움의 나라

부주제조각-주체공업

부주제조각-만풍년

일화

바닷가초소에서 (2)

언제인가는 어느 한 구분대의 보초소옆에 수양버들가지들이 휘늘어진 것을 보시고 차에서 내리신적이 있었다. 오가는 숱한 사람들과 부대 지휘관들까지도 버들가지가 휘늘어져 풍치가 참 훌륭하다고 여겼을 뿐 달리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버들가지들이 보초병의 시야를 가리우리라는 것을 염려하신것이였다. 때마침 초소의 군인들은 오침시간이였다.

그분께서는 황급히 군인들을 깨워 나뭇가지들을 치겠다는 초소장을 만류하시면서 조금 손질하면 되겠는데 우리끼리 하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톱과 전정가위를 가져오게 하시여 손수 가지들을 자르시였다. 한참이나 걸려서야 초소주변을 환하게 정이해 놓으신 그분께서는 그제서야 소식을 듣고 달려와 기쁨과 감격을 금치 못해하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보초병들인 동무들의 임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보초병이 졸면 조국이 잠자고 조국이 잠자면 원쑤놈들이 검은 칼을 들고 기어들 수 있다고 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동무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각성을 높여 초소를 물샐틈없이 지켜야 합니다. 보초병은 곧 조국의 눈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듯 조국의 모든 초소들을 철벽으로 다지시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넘고 파도를 헤치시며 최전연초소로, 하늘길초소로, 바닷가초소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이였다. 유난히도 쾌청한 7월의 그날 아침 일년 가야 오가는 길손 하나 볼 수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외진 바닷가초소에서 경애하는 영도자님을 맞이한 전사들은 너무나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동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며 영접보고를 올리는 중대장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그분께서는 전사들의 건강과 초소의 전투준비상태, 훈련정형과 생활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고나서 진지 위장상태만 보아도 구분대의 전반적 전투준비상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니 모두 함께 바다로 나가자고 하시였다. 목선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어 바다로 나가니 해변가의 아름다운 풍치가 무연한 전야에서 오가는 트랙터며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구름같은 흰 연기와 어우러져 시야에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으로 안겨왔다. 군인들에게는 그것이 늘 보아오던 풍경이였지만 경애하는 영도자님을 모신 감격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흥분으로 마음이 떠있는 군인들과 즐거이 담소하시던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육지에서는 공장들이 일떠서고 트랙터가 오가고 있으며 바다에서는 고깃배들이 물고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동해는 어데 가나 아름다우며 우리 나라는 살기 좋은 사회주의 조국입니다. 군인들은 피흘려 찾고 건설한 아름다운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신성한 조국땅에 원쑤놈들이 더러운 발길을 한치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선 초병된 자각이 가슴벅차도록 그득히 안겨오게 하는 뜻깊은 말씀이였다. 자기들의 양어깨에 실린 중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보는 군인들을 자애깊은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그분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륙으로 통하는 길들은 다 평양과 잇닿아 있습니다. 평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조국의 심장입니다. 물론 여기서 평양까지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조국의 영해를 지켜선 바닷가초병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곳도 결코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륙으로 통하는 길들은 다 평양과 잇닿아 있다는 그분의 말씀은 군인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그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민중의 안녕을 위하여 초소를 더욱 굳건히 지켜갈 충성의 맹세를 다졌다.

(내일 계속)

송시

보 약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날마다 시간맞추어 약을 권하는 아내
약이 좋아 내 몸이 좋아진다고
웃으며 반기며 정말 보약이라고

옳소. 보약도 많고만
34년 옥살이에
장작개비처럼 말라버렸던 몸
그립던 장군님의 품에서
밝은 햇빛, 맑은 공기, 깨끗한 물에
이리도 든든해졌소

자연의 고목엔
따뜻한 날씨도 살찐 대지도
꽃을 못피워도
당의 전사는 인생의 황혼기에도
청춘으로 꽃핀다오

아내여 내 건강 걱정마오
장군님품에 안겨 누리는 그 모든 것
당신의 웃음까지도
칠십인생 백발 홍안으로 살게하는
아! 당이 준 보약이라오

흠모

조선민중에게 연대를

구국전선 주체91, 3월 11일

≪평화와 통일은 조선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성황을 이룬 조선과의 친선 및 연대를 위한 국제토론회에서 한 케이스 베네트의장의 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해 진행된 이 토론회는 조선을 ≪악의 축≫으로 걸고든 부시미대통령의 망언을 규탄하고 조선민중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시한 시기적절한 모임으로 되었다.

노동평의회 위원 무스타크 라샤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원칙들을 지켜나가는 데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체사상은 파키스탄과 인도 등지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하여 그는 ≪조지 부시가 미국대통령직을 차지한 이후 세계는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미국의 악명높은 X선감옥과 미국의 후원하에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타인사람들에게 가하고 있는 학대행위, 미국의 아프간침략책동을 규탄하고 ≪사회주의조선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싸우는 전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적 기치로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과의 친선 및 연대운동에 관해 연설한 디 레그는 세계 진보적 민중들간의 친선을 강화하고 제국주의가 강요한 온갖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일랜드와 키프로스문제를 비롯한 분열과 분쟁은 긴장과 전쟁의 위험한 불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혁명적 공산주의자당(마르크스-레닌주의)의 크리스 콜먼은 ≪조선민중의 조국통일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오늘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참혹한 9.11사태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빚어낸 산물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고삐풀린 침략정책의 구실로 삼고 있다. 지금 미국은 반미성향을 가진 30~50개 나라를 타격대상명단에 올려놓고 조선을 첫 공격대상국들중 하나로 지정했다.

조선은 미제의 직접적인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온 나라를 불패의 요새로 다져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각방으로 옹호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견결한 반제자주입장은 전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주체사상연구조직을 대표하여 연설한 더모트 허드슨은 선군정치의 본질과 현시기 선군정치를 옹위해 나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했다.

의장단 성원인 영국신공산당 총비서 앤디 부룩스는 최근 연간 거듭된 심각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가셔내고 미국이 강요하는 제국주의봉쇄책동을 좌절시키는 데서 이룩한 조선민중의 자랑찬 성과들에 대해 격찬했다.

토론회에서는 회의앞으로 보내온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축전을 케이스 베네트의장이 낭독했다.

토론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수록한 녹화물을 시청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채택하고 조선민중의 투쟁에 굳은 연대를 표시했다.

봄철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1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미국의 식민지인 이 땅에 또 한차례의 봄이 왔는데요. 이 땅에서의 봄은 활기찬 새로운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투쟁의 계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올해 봄철 투쟁을 잘 해내자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김현규 :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50여년전 미국의 군사적 강점으로 자주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식민지로 전락된 이 땅에는 정녕 우리 민중의 행복한 새 삶을 북돋아주는 그런 봄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봄이 있다면 그건 미국의 식민지강점을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아침을 불러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투쟁의 봄뿐이였습니다.

사회자 : 지난해도 그러했고 올해도 이 땅에 투쟁의 봄을 불러온 우리 노동자대중인데요.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주도세력인 우리 노동자대중은 매해 봄이 오면 먼저 투쟁의 불을 지펴 올렸고 한해의 전반적 대중운동을 힘있게 추진시켜 나갔죠. 그럼 올해 봄철 투쟁도 잘 해내자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봐야하겠습니까.

김현규 : 우리 노동자대중이 올해 봄철 투쟁을 잘 해내자면 무엇보다도 봄철 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잘 알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올봄은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변들과 사건들이 예상되는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유다른 봄이 아닙니까. 올해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받들어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할 해입니다. 특히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가 북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망발을 하고 방한한 것으로해서 이 땅에는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또다시 대립과 분열의 냉전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의 이 땅에 대한 반통일영구분열책동에 추종해서 이회창과 조선일보와 같은 한줌도 못되는 반동보수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으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날로 가중되는 미제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책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압박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규 : 그렇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반 사실들은 이 땅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과 그에 기생하여 더러운 정치적 야심과 더많은 부를 채우려는 친미사대매국세력들로해서 우리의 자주권과 민중생존권은 여지없이 유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봄철 투쟁을 어떻게 떼고 어떻게 결속하는가 하는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이 땅의 반동보수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수고 올해 전반적 대중운동을 한걸음 크게 내딛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노동자대중의 봄철투쟁이 올해 노동운동을 비롯한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실현을 위한 전반적 대중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 말씀이 되겠군요.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봄철 투쟁의 포문을 연 우리 노동자대중이 이 투쟁을 잘 해내야 각계 운동단체들과 민중이 배가된 승리의 신심을 굳건히 갖고 올해 대중운동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

니까.

김현규 : 그렇죠. 그리고 올해 봄철 투쟁을 잘 해내자면 투쟁의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몇푼의 임금인상이나 몇개의 일자리를 따내는 것과 같은 근시안적인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대중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는 투쟁으로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자대중이 생존의 막바지에서 허덕이고 있는 건 바로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경제침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종식시키지 않는한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민중의 삶은 조금도 개선될수 없고 더욱 비참해 질 것입니다.

사회자 : 더욱이 이번 부시가 몰아온 핵전쟁의 먹구름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민족이 공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존권이요 뭐요 조차 논의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봄철 투쟁의 목표는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노동자대중은 이번 봄철투쟁을 통해서 민중생존권쟁취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하겠죠.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대중이 봄철 투쟁을 잘하자면 정확한 투쟁목표를 정하는 것과 함께 그를 실현하기 위한 결사의 각오를 안고 1300만의 노동자 모두가 투쟁의 마당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 구호나 외치고 도중에 흐지부지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난 시기 일부 투쟁들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도중에 양보와 후퇴를 한다면 전반적인 올해 대중운동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건 물론이고 나아가서 노동자의 생존권, 우리 민중의 생사를 위협하는 미국의 침탈행위, 핵전쟁책동은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대중은 사생결단의 각오를 갖고 봄철 반미자주화투쟁에 모두 동참해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봄철 투쟁을 잘 해내는데서 이밖에도 노동운동단체간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강화의 중요성에 관해서 또 조직력과 지도력의 강화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할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우리 1300만의 노동자대중은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찾는 봄철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11일

2차 연대총파업돌입 결의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산하 공공연맹은 1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전소매각반대 연대집회를 갖고 2차 연대총파업돌입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전력생산의 60%를 맡고 있는 발전소를 미국이나 재벌에 매각할 경우 전기요금인상과 정전사태와 같은 전력대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발전소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발전소 사측이 노조와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파업참석자의 대량징계 등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사측이 끝내 강경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제2의 연대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측이 만든 3단계 파업파괴시나리오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여성노동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부인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정부과 사용자측에 촉구했습니다.

F-15K 도입반대투쟁

미국전투기도입을 반대하는 농성과 시위투쟁이 6일 국방부청사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농성과 시위에는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상임의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서경원공동대표, 민주노총 이규재조국통일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시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종한 국방부가 미 보잉사의 ≪F-15K≫를 끌어들이려고 책동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F-15K≫선정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해 평가기관에 압력을 가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차세대전투기 시험평가단 부단장 조주형공군대령을 구속한 당국을 비난하면서 그들은 그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회창총재 등의 사퇴촉구 이부영부총재

한나라당 이부영부총재가 최근 당내분사태를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이회창총재를 포함한 총재단사퇴를 촉구해 당내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부영부총재는 9일 이회창과 독대한 자리에서 당이 위기상황인 만큼 총재단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젊은 지구당 위원장들의 모임인 ≪미래연대≫도 사태수습책을 당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연대≫의 공동대표인 이성헌의원은 10일 ≪미래연대≫소속 의원 9명이 9일 모임을 갖고 현재 당이 비상국면인 만큼 난국타개를 위한 이회창총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성헌의원은 ≪미래연대≫가 제시한 수습책에는 대선전 집단지도체제도입과 정당민주화이외에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내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부영부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소속 의원들이 이회창을 포함한 총재단사퇴와 사태수습채택 등을 당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아 당을 망쳐먹은 이회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발전노조 조합원 연행

경찰이 서울 조계사에 진입해 농성중이던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연행해가는 불법무도한 폭거를 자행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파쇼경찰은 10일 오후 2시 30분쯤 경찰의 불법연행중단을 촉구하며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발전노조 노조원 150여명 가운데 7명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법회중이던 대웅전안으로 경찰병력이 난입해 조계사관계자들과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통련 중앙위원회 회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중앙위원회 8기 1차 회의가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각지의 한통련 중앙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한통련 곽동의의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을 비난하고 이에 대처해서 민족의 이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미자주는 통일이고 평화라면서 반미자주, 반전평화의 기치높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간섭을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과 평화달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반미자주, 반전평화,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조국통일운동을 한층 강력히 전개하며 내년에 한통련결성 30돌을 맞이하기 위해 500일간 조직강화운동을 전개한다는 올해 운동방침과 사업계획이 채택됐습니다.

투쟁의 봄을 맞은 청년학생들에게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1일

청년학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겨울 방학을 마치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과 함께 개학을 맞이했는데요. 이 땅에서의 봄은 청년학생들이 개학과 함께 약동하는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정의와 애국을 위해 투쟁의 불을 지피는 계절입니다.

해마다 불가항력의 기상을 안고 솟구쳐 오른 우리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은 바로 이 봄철 투쟁에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갖고 요원의 불길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우리 민중의 투쟁사에 빛나게 기록된 4.19봉기도, 영웅적인 광주민중항쟁도, 87년 6월민중항쟁도 바로 이 봄철 투쟁에서 발산되어 전국민적인 항쟁으로 분출됐습니다.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전국민적 투쟁의 분화구로 된 것입니다. 특히 2002년 투쟁의 봄을 맞은 오늘 이 땅의 현실은 청년학생들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올 정초부터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이행의 걸림돌을 쓸어버리기 위한 반민주투쟁과 반이회창, 조선일보반대, 이북에 대한 주적론철회, 한총련과 범민련남측본부 등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철회촉구를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진척시켰습니다.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연두교서에서 한 부시의 악의 축망발과 관련해 반미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고 마침내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거족적인 반부시반미투쟁으로 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회창과 조선일보의 친미사대주의, 반민족, 반통일적 죄행을 폭로단죄하는 반이회창, 조선일보반대투쟁이 범국민적으로 힘있게 전개됐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중이 이미 지펴올린 투쟁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번져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해서 마땅히 투쟁의 기수, 선봉장이 되어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통일이정표입니다. 자주통일의 지름길도 바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이미 결의한대로 이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가 내놓은 3대 호소, 3대 제의실현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할 겁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는 온갖 반민족적 책동과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여야 합니다.

미국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주되는 장애물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철천의 원수입니다. 미국에서 부시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 9.11테러를 구실로 한 전력증강책동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가 3대 호소, 3대 제의를 내놓자마자 이른바 연두교서라는데서 화약내 풍기는 폭언을 한데 이어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방한으로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겨레의 통일염원에 칼질을 한 것도 다름아닌 부시, 바로 미국입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을 가로막는 통일의 원수이며 반미투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투쟁과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학생들은 반미투쟁의 선봉에 서서 대중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미군기지되찾기, 양민학살진상규명, 무기강매반대 등 반미투쟁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더욱 완강히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는 구호를 들고 아직도 일부 사람들속에 남아 있는 친미의식구조를 반미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친미예속으로 얼룩진 이 땅을 반미자주의 열풍이 몰아치는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이회창투쟁과 조선일보반대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는 것은 6.15공동선언이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과 조선일보는 다같이 미국에 빌붙어 분단에 기생하는 친미사대매국노이고 매문지이며 통일의 걸림돌입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을 반미투쟁과 반이회창, 조선일보반대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여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반이회창투쟁과 조선일보반대투쟁을 현실의 요구에 걸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보다 심화시켜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지방선거와 대선 등 합법적인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회창과 조선일보의 수족을 얽어매고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여 역적들을 민중의 심판대에 끌어내는 자리로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북에 대한 주적론철회,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철회,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투쟁의 봄을 맞은 청년학생들이 이후에도 투쟁의 기수답게 대중투쟁의 선봉에서 싸워나가려면 학생운동의 조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하겠습니다. 학생운동에서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의 하나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우선 백만학도의 단결과 투쟁의 구심체인 한총련을 청년학생들의 지향과 이익의 결집체로, 투쟁력이 강한 조직으로 정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만학도가 한총련의 깃발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학생투쟁을 조직하고 대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10기 한총련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싸워나갈데 관한 9기 한총련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서 한총련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조직력과 단결력, 투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또한 노학연대, 농학연대를 비롯해서 각계 민중과의 연대공동행동을 실현하며 온갖 계기와 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감으로써 학생운동을 활성화하고 6.15공동선언이행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여러분!

승리는 정의와 애국에 살고 민중의 편에 싸우며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의 편에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승리를 향해 더욱 힘있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은 미국의 대변자인가

오늘의 연단 - 3월 10일~11일

최근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친미주구로써의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드러내놓아 우리 민중의 커다란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그는 한반도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해소에 있다고 하면서 북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망발을 줴쳐댔다. 그런가하면 북은 미사일문제해결을 위해서 즉각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한다느니 과거 핵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여야한다느니 하며 떠벌이기도 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그가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지지하면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북공동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는 망언을 늘어놓은 것이다. 그야말로 악의 축론을 부르짖으며 북을 군사적 힘으로 압살하려고 광분하는 미국 호전분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친미주구의 넋두리라 해야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부시의 서울 행각을 계기로 미행정부의 강경보수파와 호전분자들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벌이면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

부시를 비롯해서 체이니, 라이스, 파월과 같은 호전분자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악의 축≫론을 운운하며 대북강경발언으로 북을 위협하는 등 전쟁분위기를 고취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과연 북이 누구를 위협하고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공할 무기들을 가지고 도처에서 군사적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며 평화를 파괴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마구 학살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이야말로 악의 수괴이다.

미국은 이 땅에 수많은 대량살상무기를 배비해놓고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북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은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지지하면서 북이 대량살상무기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역설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수작인가. 이회창의 작태는 그가 미국의 사환꾼으로써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하기는 그가 지난 1월 미국 행각시에 부시행정부의 고위정객들을 만나 그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아부아첨하며 친미주구, 사대매국노로써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권력욕에 미친 나머지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면 미국상전의 더러운 발바닥도 서슴없이 핥아먹는 자가 바로 이회창이다.

이회창이야말로 털끝만한 민족적 양심도 없는 민족반역자이고 권력욕에 환장이 되어 흉악한 짓도 서슴지않는 정치간상배, 인간추물이다.

이회창과 같은 역적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우리 민중의 수치이고 결국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화근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이 땅의 각계 민중이 이회창의 더러운 정체를 똑바로 보고 이 흉악한 민족반역아를 정계에서 지체없이 쫓아내기 위한 투쟁을 보다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1일

평양시 고등중학교 졸업반학생들 조선인민군입대탄원

평양시 고등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이 10일 **김일성**광장에서 모임을 가지고 조선인민군입대를 열렬히 탄원해 나섰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평양시위원회 장용철1비서는 모임에서 한 발언에서 고등중학교 졸업반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스러운 조국보위 초소로 달려 나가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 길에서 결사옹위의 투사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고등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은 결의토론에서 졸업후 가야 할 곳은 많고 많지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군대가 되여 조국보위 최전연초소에서 총을 쥐고 보람찬 청춘시절을 빛내이고 싶은것이 자기들의 희망이며 포부이라고 말하였다.

학부형, 제대군인대학생, 전쟁로병은 발언에서 조선인민군입대를 탄원해 나선 수도의 고등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총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조국을 보위하는 길에서 모두가 영웅이 될데 대하여 당부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가요 ≪조국보위의 노래≫를 비롯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노래를 부르며 수도의 거리들을 힘차게 행진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중린비서, 조선인민군 리종산차수와 관계부문 일군들, 전쟁로병들이 평양시 고등중학교 졸업반학생들과 함께 모임에 참가하였다.

향일회 회원들 2.16 태양맞이모임 진행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향일회 회원들이 2.16 태양맞이모임을 가지였다. 2월 16일 새벽 동해의 해맞이명소에 도착한 그들은 장쾌하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 보며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 >, ≪민족수호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 만세 >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모임에서 회장은 지난 날 우리 겨레가 **김일성**주석님을 맞이하여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광복을 이룩했다면 오늘은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민족의 운명이 수호되고 조국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왕재산회의

왕재산회의장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3월 11일은 력사적인 왕재산회의가 진행된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9년전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당시)의 한 부대를 친솔하시고 조국땅 함경북도 온성지구에 진출하시여 왕재산마루에서 국내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주석께서는 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연설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밝히시였다.

회의는 조선혁명수행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가일층 앙양시킬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조선인민은 이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주체64(1975)년 10월 이곳에 왕재산대기념비를 건립하였다. 6만평방메터의 부지를 가진 대기념비는 주석의 동상과 중심군상, 봉화탑으로 된 기본주제상 그리고 부주제상들, 부각상, 왕재산혁명사적비, 왕재산혁명박물관으로 이루어 져 있다. 또한 회의장소에는 당시에 있던 한 그루의 참나무가 력사의 증견자로 푸르싱싱 자라고 있으며 표식비가 세워 져 있다.

자주적평화통일의 장애물들은 제거되여야 한다

≪로동신문≫ 11일부는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민족자주통일의 담보가 있다고 강조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신문은 남조선강점 미군은 위험한 침략세력이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 막는 기본장애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지적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철두철미 북침을 위한 무력으로 조선반도에서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전쟁의 위험을 몰아 오는 기본화근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함에 있어서 조선반도를 교두보로 틀어 쥐자는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적이다. 미국의 호전계층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의 기본명분으로 들고 나오는 ≪북의 위협≫론은 완전한 거짓이고 날조이다. 그것은 미제침략군에 ≪전쟁억제력≫, ≪평화의 수호자≫라는 비단보자기를 씌워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기도를 실현하고 전 조선과 나아가서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려는 파렴치한 수작이다.

신문은 또한 동족을 ≪주적≫으로 몰아 대고 그 무슨 ≪안보≫의 구실밑에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어 대며 북침전쟁불집을 터치지 못해 발광하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을 민족안에 두고 있는것자체가 비극이며 수치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동족끼리 대결하고 전쟁하는것은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을 동족끼리의 싸움마당으로 되게 할수 없다.

오늘의 현실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한사코 가로 막는 ≪보안법≫의 존재는 극히 시대착오적인것이다.

신문은 조선민족은 통일운동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근본리념을 끝까지 고수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리랑≫ 관광 고찰단들 활동시작

(평양 3월11일발 조선중앙통신)21세기 최고걸작으로 완성되고 있는 조선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내외인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관광고찰단들의 활동이 시작되였다.

지난 7일 중국(홍콩, 마카오)에서 온 홍콩봉황텔레비죤방송국, 마카오일보사, 광동성신회시세기려행사 등 근 20개단위 대표 30여명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종합훈련과정을 보았다. 민족성이 짙은 명곡, 명무용들과 배경대의 변화무쌍한 조화를 본 그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탄복한다고, 돌아가면 널리 소개하여 보다 많은 중국사람들이 이 황홀한 공연을 직접 볼수 있는 행운을 지니도록 하겠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고찰단은 수도 평양에서 만수대대기념비와 만경대, 인민대학습당,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지하철도 등을 참관하고 명성 높은 조선의 교예공연도 관람하였다.

그리고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과 보현사, 개성의 고려박물관과 왕건왕릉, 판문점도 돌아 보았다.

≪동지애의 노래≫

가요 ≪동지애의 노래≫는 조선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 지고 있는 노래들중의 하나이다.

이 가요는 주체70(1981)년에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로 창작(리종순 작사, 성동춘 작곡)되였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초기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그이와 청년공산주의자들간에 맺어 진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노래하고 있다.

노래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 막아도 동요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령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또한 동지애로 시작되고 승리하여 온 조선혁명의 전 로정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게 하며 혁명의 길에서 운명을 함께 하는 령도자와 전사들간의 고결하고 순결한 동지적 믿음과 사랑, 의리를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맥박치고 있는 이 노래는 오늘 선군시대의 찬가로 온 나라에 메아리치고 있다.

조선인민은 이 불멸의 찬가를 높이 부르며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진군길을 더욱 다그치고 있다.

4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3월 11일

≪로동신문≫ 11일부는 ≪4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제 멀지 않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이하게 된다. 뜻 깊은 태양절이 다가오는 지금 온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이 더욱 세차게 끓어 넘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심으로써 식민지약소민족으로 버림 받던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자랑 떨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모든것은 그 어느것이나 다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잇닿아 있습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맞이하게 되는 뜻 깊은 혁명적명절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전면적으로 꽃 피우는 보람찬 시대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돌격전이 힘 있게 벌어 지는 력사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이하게 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매우 뜻 깊은 사변으로 된다.

지금 우리 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뜻 깊은 태양절을 가장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 지고 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준비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태양절을 맞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다. 전통적인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도 전례 없는 규모에서 준비되고 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으며 다채로운 기념행사들과 모임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신뢰심과 흠모심이 얼마나 높고 뜨거운가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요구와 인류의 념원을 심장깊이 새기고 4월의 대축전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는것은 **김일성**민족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하는 성스러운 사업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 자기 수령이 제일이며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억세게 투쟁하여 왔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재생과 륭성을 가져다 준 생명수였으며 우리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강의성, 높은 창조적위력의 근본원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은 오랜 혁명투쟁의 나날에 자기 수령제일주의정신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전체 인민이 떨쳐 나 이번 태양절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온 누리에 힘 있게 떨쳐 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강성대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의 의지이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 피워 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다.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산악같이 떨쳐 일어 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나갈 때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가 더욱 앞당겨 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는 이 고귀한 전통을 이어 올해의 태양절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걸출한 위인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탁월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여 온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 인민적사상감정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비약해 나가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통하여 불패의 당과 군대를 건설하시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이 얼마나 거대한것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들을 목숨과 같이 귀중히 여기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옹호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혁명적량심을 지니고 혁명선배, 혁명의 수령에 대한 도덕의리심이 강한것이다. 력사를 놓고 보면 진정한 혁명가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혁명앞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 오든 수령에 대한 도덕의리를 목숨으로 지켰다.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도덕관을 적극 따라 배워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철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은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일관성 있게 틀어 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교시가운데서 이미 관철한것과 아직 집행하지 못한것을 엄격히 따져 보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려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제작하고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운 라남로동계급의 숭고한 풍모와 투쟁기풍은 전체 인민이 따라 배워야 할 귀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 주신 라남의 봉화따라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를 지니고 과감히 떨쳐 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제일 큰 념원은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는것이였으며 인민들의 행복은 수령님의 기쁨이였고 락이였다. 우리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부럼없이 살게만 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던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최근년간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토지정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도 하고 인민생활에 복무하는 현대적인 공장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도 많이 일떠세웠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자면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닭공장들과 기초식품공장들을 비롯한 생산기지들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잘하여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뜻 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온 나라가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사의 날이다. 우리 인민에게 기쁨과 환희의 명절은 많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보다 더 경사스럽고 의의 있는 명절은 없다. 전국각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가장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가야 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최대의 걸작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 나가야 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칭송하는 모임들을 비롯한 선전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특색 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가 혁명적랑만과 정서로 들끓고 흥성거리게 하여야 한다.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일성**민족의 긍지를 깊이 심어 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태양절기념행사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뜻 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누구나 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위훈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뜻 깊은 태양절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드높은 정치적열의에 넘쳐 과감히 떨쳐 일어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할 때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 (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 사상적 대결을 승리에로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17회
림종수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11일

안녕하십니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가운데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의 하나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앞장에서 우리 인민 모두를 이끄시어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정치, 사상적 대결에서도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 사상적 대결을 승리에로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켜 붕괴시키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할 수법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버리려고 미쳐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제국주의 연합세력과의 날카로운 정치사상적 대결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국주의자들과의 가장 첨예하고 심각한 정치사상적 대결에서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정치사상적 대결의 승리자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크게는 두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짓부셔 버리도록 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금성철벽으로 다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짓부셔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사상적 대결을 동반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썩어빠진 부르조아 사상문화의 침투책동으로 이전 소련과 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을 총 한방 쏘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놈들은 어리석게도 우리의 사회주의도 반동적인 사상문화로 오염시켜 허물어보려고 망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놈들은 집요하고 악랄하게 접어들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평화적 이행전략에 매달리면서 우리를 그 무슨 개혁, 개방에로 유도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했습니다. 놈들은 우리 내부에 쉬를 슬기 위해 어중이떠중이들을 매수, 이용하고 반동적이고 색정적인 각종 선전물들을 들이미는 것과 같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적용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명철하게 분석, 통찰하시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부수기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부르조아 사상독소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튼튼히 치도록 하시였으며 비사회주의적 요소와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금성철벽으로 다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적들과의 정치사상적 대결에서의 승리는 정치사상진지의 공고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무엇보다 먼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당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이 일심단결이야 말로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일심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여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당과 군대, 인민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을 철옹성같이 다지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두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만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 있는 통일단결로 될 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고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와함께 당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당의 불패의 생명력과 영도력은 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함으로서 당과 인민대중과의 관계를 피와 생명을 서로 주고받으며 운명을 위탁하고 보살펴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적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어려운 난국을 뚫고 나가자면 모든 일군들, 특히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인민들과 한 가마밥을 먹으면서 걸린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더욱 강화되게 되였습니다.

주체 89(2000)년 10월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당창건 쉰다섯돌 경축행사에 참가했던 외국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이 부러워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조선은 일심단결의 강위력한 나라이다. 조선에서의 모든 승리의 비결은 일심단결에 있다.≫

이것은 이 한사람만이 느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세계 수많은 나라의 벗들이 그것을 깊이 체득하고 있으며 부러워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군민일치를 강화해서 온 사회의 통일단결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에서의 일치는 군민일치사상의 본질적 내용을 이룹니다. 군대와 인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당과 수령을 받들때 공고하고도 포괄적인 사회정치적 지반이 형성됩니다.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통일단결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군민일치를 이룩하는데 깊은 관심을 두시고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군민관계 발전의 긍정적 소행들을 적극 찾아내고 내세워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나라가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우리 인민들 속에서는 군대를 위하고 응원하는 기풍이, 군인들 속에서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기풍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는 어려운 행군을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이 불패의 것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재부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는데 있어서 다음으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우고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되도록 하시였습니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자폭정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정신, 높은 희생성과 영웅적 투쟁정신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명적 군인정신의 기본 핵은 수령결사옹위정신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발휘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심어주시고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혁명적 군인정신이 차 넘치고 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외국의 한 텔레비전까지도,

≪오늘 북조선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김정일** 영도자를 위해서라면 육탄이 될 각오가 되여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참된 충신들로 키워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신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의 혁명성, 불멸의 공적이 있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데 대한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인민들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공산주의미풍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도 강화하도록 하셨으며 혁명적 낙관주의와 문화정서 교양을 강화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인들과 그 가족들,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예술공연을 몸소 보아주시고 고무해 주셨으며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혁명의 노래, 충성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러한 혁명적 낭만을 가지고 참기 어려운 시련도, 가슴아픈 고비들도 뚫고 넘으며 승리의 길을 끊임없이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정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시야말로 사회주의 조선의 운명이시며 모든 승리의 상징이시라는 것을 실증하였습니다.

하기에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우리의 장군님을 사회주의의 수호자로,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러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의 군사적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을 훌륭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험난한, 그러나 계속되는 반미시위

30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12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30차 미 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됐다. 하지만 29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를 막지 않던 경찰이 부시 방한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논란이 될 전망이다. 12일 오후 2시경 소파개정국민행동, 용산운동본부, 미군기지 공대위, 매향리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미국의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 철회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반대를 위한 반미연대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측은 열린시민마당 문화관 광부 쪽 입구 일부가 미국 대사관 100미터 반경 내에 포함돼 있어 공원 전체가 집회금지구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했다.

이에 주최측은 ≪엄연히 미 대사관 반경 100미터에서 벗어난 곳에서 집회를 갖는데 공원 일부가 집회금지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모든 집회를 가로막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집회를 강행하려 했다.

집회가 시작되자 1백여 명의 전경들이 달려들어 소파개정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과 용산운동본부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 16명을 즉각 연행했고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나머지 20여 명의 참가자들을 공원 한 복판에 강제 억류시켰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같은 장소에서 29차례에 걸쳐 매달 반미연대집회를 진행해 왔지만 경찰은 사실상 이를 허용해 왔다. 결국 이날 경찰들의 ≪집회금지구역≫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경찰 스스로 그동안 ≪불법집회≫를 용인한 셈이 돼 ≪자의적 잣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은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집회 현장을 지나갔을 때에도 집회를 막고 참가자 전원을 연행해 가기도 했다.

바로 두 달 전 이 자리에서 반미연대집회를 진행했던 미군기지공대위 김용한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29차례 반미연대집회를 갖는 동안 아무 소리도 없다가 하필 부시가 다녀간 뒤에 집회를 막는 이유가 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종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불법집회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불법 집회를 용인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불법을 용인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하고 가라고 놔둔 거다≫라며 얼버무렸다.

김용한 집행위원장은 ≪그 사이 법이나 경찰청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다만 부시 미 대통령이 다녀간 것뿐인데 결국 방한 중에 부시 측에서 미 대사관 시위를 철저히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처럼 평화적인 집회를 강제로 막는 것은 독립국가 경찰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미 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이었던 항의서한에서 이들은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 폐기와 <연합토지관리계획(NPR)>을 반대했다. 최근 발견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는 평시에도 이북을 비롯한 7개국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오는 15일 한미 양국이 합의할 예정인 연합토지관리계획에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미군기지부지 4천만여 평을 반환하는 대신 의정부, 평택 지역의 도심 75만평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신설, 확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에 연행됐거나 공원에 억류돼 있던 집회참가자들은 오후 6시경 모두 풀려났다.

권우성/김시연기자
오마이뉴스 2002/03/12

금싸라기 같은 도심 땅 내놓으라고?

한 · 미 당국이 15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자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11일부터 미대사관 앞에서는 LPP관련 공동대응 수도권 대책모임 주최로 ≪미군기지 신설 확장 반대, 미군기지 반환 일정 명문화, 미군기지 반환 촉구 1인 릴레이 시위≫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1인시위는 회담이 열리는 15일까지 각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15일로 예정된 후속 회담이 이달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어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다.

이번에 열릴 LPP회담은 작년 11월 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미군기지 이전, 신설, 확장에 관한 ≪의향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지역의 미군기지 4천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도심지 땅 75만평을 새로 공여하기로 하고, 반환을 요구했던 매향리, 스토리 사격장 등의 미군기지가 제외된 의향서의 내용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을 비롯한 용산, 송파, 의정부, 부평, 평택, 수원, 성남등의 수도권 지역의 미군기지 대책위가 모여 LPP관련 공동대응 수도권 대책모임(가)을 구성하고 집회와 1인시위, 국방부장관 면담 등의 활동을 예정해놓고 있어 LPP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11

F-15K 구매압력 뿌리치고 자주국방 이룩해야

FX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미국이 F-15K를 강매(?)하는 모순을 언급한다.

첫째, 부시 정부는 한국군에 북한 타격용 최첨단 전투기인 F-15K를 강매하는 한편 북한에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F-15K가 전쟁 억지력이라며 남한에 첨단무기를 억지로 파는 한편 북한에는 무기를 억지로 줄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이런 ≪억지춘향≫을 민족의 이름으로 퇴짜 놓아야 한다. 6 · 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의 사랑싸움판에 뛰어들어 이간질을 해온 부시. 그가 이번에는 F-15K라는 흉물을 들고 나와 남북한을 상대로 ≪2중의 강짜 놀음≫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2중의 강요≫가 미국의 한반도 평화관리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즉 F-15K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약주고(남한의 무력 강화) 병주는(북한 공습능력 강화)≫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둘째, 물건을 살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자본주의의 모범국가라는 미국이 이런 법칙을 어기고 구매자인 한국정부에게 자국의 전투기를 사라고 갖은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 파괴의 ≪조폭≫상행위는 자본주의 질서 파괴 죄(?)로 응징 받아야 마땅하다.그러면 F-15K를 사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힌다.

첫째, F-15K를 사면 한국군의 주한미군에 대한 종속도가 심화된다. 미국은, 한 · 미 연합작전과 상호운용성을 내세워 F-15K를 사라고 한다. 한국군이 4조 2천억 원의 국방비를 들여 산 F-15K를 미국의 전략체제에 편입시키라는 말이다. 4조원의 국력을 낭비해가며 미군의 하수인이 되는 것도 부족하여 동족인 북한을 타격하라는데, 이를 민족의 이익 차원에서 용납할 수 있나?

둘째, (한반도 전쟁의 화근이 될지도 모를) 한 · 미 군사동맹 관계를 폐기하기는 커녕 강화하기 위해 F-15K를 사라고 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청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셋째, F-15K 구매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이 대안으로 라팔을 선호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는 하나(기종간의 우열비교, 남한 차원에만 국한)만 알고, 둘(남북관계에 주는 악영향)은 모르는 소치이다. ≪라팔이 F-15K 보다 성능이 더 좋은데 왜 라팔을 안 사냐≫는 쪽으로 여론을 몰면 곤란하다. 성능이 좋은 전투기일수록 북한에 대한 종심타격 능력이 뛰어나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군 당국처럼 북한을 주적으로 보면 모르겠으나, 햇볕정책처럼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전투기를 더욱 강력하게 반대해야한다.

김승국
디지털말 2002/03/11

부시정부의 핵정책 모순

핵무기 사용과 핵확산 방지

부시정부가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시정부는 올초 중국, 러시아, 이북 등 최소 7개국들을 대상으로 핵무기 사용 계획을 포함한 유사시 계획을 국방성에 지시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10일 폭로했다.

이들 7개국은 중국, 러시아와 부시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지목한 이북, 이란,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시리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성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분쟁 유형과 관련국들은 △화학, 생물학 무기에 의한 공격 △불명확한 ≪기습적 군사공격≫ △이북의 남침 △중국의 대만 공격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8일 의회에 보고된 비밀 핵무기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는 벙커공격용 소형 핵무기 개발, 쌍방에 피해를 주는 핵무기의 축소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L.A.타임즈는 이 NPR에서 핵무기 감축 및 핵확산금지라는 외교적 목표와 상상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군사적 준비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꼬집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작년 5월 5일 안보정책 대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확산, 반확산, 미사일방어 등을 천명하는 자리에서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을 위해 일방적인 핵무기 축소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로 인해 부시정부의 핵무기 감축은 공허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핵무기 사용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시정부는 작년 9.11테러 이후 국제정세를 주도하면서 미사일방어망의 추진을 위해 탄도미사일제한(ABM)조약을 일방탈퇴하기로 하여 일방주의적인 안보정책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부시정부의 핵무기 사용 계획은 럼스펠드가 이끄는 국방성의 핵전략관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성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장거리 핵무기 감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술적이고 소위 ≪적응적≫ 핵전력을 증진해 유사사에 대비한다는 핵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PR 보고서는 미국의 핵공격 능력의 준비는 ≪즉각적이고, 잠재적이고, 혹은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와 관련된다고 하고, 이북,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이 이런 상황 발생과 관련된 국가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L.A.타임즈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미국이 9.11테러로부터 받은 영향도 크다고 지적하고, 부시정부는 과거의 억지정책에 대한 효과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존 볼튼 국무성 차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억지정책이 모든 사람들에 작동한다는 사고는 9.11테러로 잘못된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한바 있다. 유사시 부시정부의 이같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명백히 억지정책, 최후의 방어수단으로서의 핵무기의 사용 방침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부시정부의 이런 입장은 관련당사국들은 물론 핵확산 우려를 불러와 세계적인 긴장을 조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안보보좌관 등 미 고위인사들은 부시의 핵정책이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파월은 오늘 부시정부에서는 핵무기 개발 및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핵무기 사용가능성은 일파만파로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보혁기자
통일뉴스 2002/03/11

미국 패권정책 러 · 중 등돌려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이 군사 · 정치 ·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미-러 갈등=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일 미국 국방부의 핵태세검토 보고서를 문제삼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를 안심시키고 명확한 해명을 위해 미국 고위관리의 성명을 기대한다≫고 촉구한 뒤 ≪만일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제사회의) 우려와 유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이날 ≪전략핵무기 감축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5월의 미-러 정상회담 때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핵감축 협상을 거쳐 폐기되는 핵탄두를 비축한다는 방침이나 러시아 쪽은 폐기 핵탄두의 해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조처를 둘러싼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갔으나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이 아니다. 세르게이 단크베르트 농무차관은 ≪미국이 바라듯 분쟁이 빨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수입금지조처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두 나라는 미국이 그루지야에서 벌일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미군 200명을 파병하는 문제나 이라크 공격 여부를 놓고도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다. 미국과 러시아는 9 · 11 동시다발 테러 뒤 어느 때보다 따뜻한 ≪밀월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렇게 갈등이 계속 불거짐에 따라 5월의 미-러 정상회담도 유대관계를 강화할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 미-중 긴장=쑨위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핵태세검토 보고서와 관련해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미국은 핵무기로 상대방을 겨냥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평화와 협력 · 발전이 세계의 조류인 상황에서 어떤 냉전적인 사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특히 1978년 미국-대만 단교 이후 지난 10일 처음으로 탕야오밍 대만 국방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5월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의 방미가 예정된 것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종교 · 소수민족 탄압을 비판한 것에 대해 미국내 인권 침해상황을 거론하며 맞비판했다.

미국 또한 이날 ≪중국이 내놓은 인권보고서는 조사가 빈약하고 피상적인 것≫이라며 강경 태도를 이어갔다.

하성봉, 정재권기자
인터넷 한겨레

친미외교 · 의혹사건으로 네티즌에게 찍힌 이회창

친미사대외교와 호화빌라 파동
며느리 하와이 원정출산의혹으로 비난 거세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친미사대적 행태와 최근의 호화빌라 문제, 며느리의 하와이 원정출산 의혹등으로 네티즌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총재는 지난 1월말 미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북강경책을 주문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로 친미사대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고 곧바로 터져 나온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김동성선수의 금박탈 사건 · 제이 레노의 망언 등으로 반미감정이 높아진 네티즌들에게는 찍힌 상태였다. 그러던 차에 종로구 가회동에 장남과 함께 100평이 넘는 호화빌라 두채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와 며느리의 하와이 원정출산의혹이 겹치면서 네티즌들과의 불화의 간극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의혹으로 이총재의 안티사이트는 물론 이총재의 공식사이트인(www.leenc.com)에도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인이라는 네티즌은 ≪총재님 어서 빨리 대통령이 되셔서 국민의 주거생활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의 면적을 꼭 114평으로 늘려주세요 저도 그런 집에서 거실에 탁구대 놓고 살고 싶습니다.≫ 라며 이총재의 호화빌라생활을 비꼬았다.

박근혜 부총재의 탈당이후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내분과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젊은 네티즌들의 비판여론으로 이회창 총재의 대권가도에 빨간 불이 켜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김윤희기자 / 시민의 신문

테러방지법, 제 2의 국가보안법

사회단체, 종교인 등 테러방지법 반대 천명

지난 해 9.11 미국 뉴욕 무역센터 테러 사건 이후 3월 중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테러방지법은 제 2의 국가보안법이며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제 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테러방지법 폐기를 천명하고 나섰다.

먼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이 포함된 종교인들은 11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종교인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KNCC 인권위원 정진우 목사의 사회로 열린 선언대회는 1백여명의 종교인들이 참가했으며 테러방지법안 경과보고, 종교인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독교회관에서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는 ≪테러라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입법될 경우, 국정원, 경찰, 군대 등 권력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반인권적 악행, 군병력을 동원하는 상설비상계엄법, 인권을 침해하는 제 2의 국가보안법이다≫라고 지적하며 ≪국회 비공개 청문회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시각 제 사회단체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테러 방지법 폐지를 위한 시민단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테러방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3월 11일 비공개청문회를 갖고 12일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김성헌 기자
유뉴스 2002/03/11

생리휴가도 없는 노동현실 딸들아 일어나라

3. 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9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각계 시민단체, 학생, 노동자 8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여성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 등이 후원했으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성차별 · 성폭력 근절≫, ≪고용평등 확대≫,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먼저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중소영세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방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리휴가도 보장되지 못한 현실이다≫며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했다. 또한 ≪전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한 현실과 맞서 싸우는 길에 하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여성의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이다. 93년전 선배 여성 노동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하자≫고 주장했으며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10일 오후 12시 대학로에서 ≪한국여성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성매매방지법제정, 호주제 폐지, 보육의 공공성을 주제로 각종 행사와 공연이 진행되었다.

대학로 6개 차선의 차량통행이 금지된 가운데 열린 여성대회에서는 여성 · 시민 · 문화단체들이 준비한 자료전시, 비디오상영,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반전반미투쟁과 6.15실천투쟁의 결합에 대하여 (4)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0호)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애국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마땅히 선봉에 서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야합니다. 그러자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그 정당성을 각계 민중속에 널리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심화시켜 꾸준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북의 합동회의가 제시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3대 호소, 3대 제의에 각계 민중이 적극 지지동참해 나서도록 하기 위한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무력증강,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반전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화해와 단합으로 향하던 겨레의 통일열망에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연습으로 찬물을 끼얹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양민학살진상규명, 주한미군기지되찾기운동, 무기강매반대, 북침전쟁연습반대 등 반미투쟁들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의 궤도선상에서 더욱 심화시켜 거족적인 반미자주화의 열풍을 몰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 역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6.15공동선언이행으로 민족자주통일성업이 이룩되면 외세에 빌붙어 분단에 기생하는 반통일보수세력은 자기의 생존기반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반통일보수세력은 어떻게해서나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아보려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올 정초에 들어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우보수세력인 한나라당 이회창은 지난 1월 17일 연두기자회견이라는데서 남북관계의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을 떠벌이다 못해 대양 건너 미국에까지 찾아가 상전들에게 연일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을 애걸하며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해보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매문지들은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을 걸고들면서 악랄하게 비방해나섰습니다. 현실은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을 척결하지 않는 한 6.15공동선언을 성과적으로 이행할수 없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줍니다.

청년학생들은 지난해 투쟁경험을 적극 되살려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 이회창과 반통일매문지인 조선일보를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올려야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비롯한 합법적 투쟁공간을 역적 이회창을 매장하고 조선일보매문지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는 주적론철회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좀더 당당하게 벌이고 더욱 완강히 꾸준하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선봉장이 되어 과감한 투쟁으로써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6.15공동선언은 이행돼야한다, 구국의소리 2002 2 11 – 14)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을 반부시반미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부시의 방한과 관련해 불타고 있는 반부시반미기운을 더욱 고조시켜 나감과 동시에 당면한 반이회창투쟁도 다같이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려 이회창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미국의 졸개들이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기를 꺾어놔야 합니다.≫(민족의 역적을 기어이 매장하자, 구국의소리 2002 2 13 – 15)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 신앙과 종파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해서 반부시반미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한다.

이미 지난 2월 전국민중연대와 민주노총 등 재야운동단체들이 부시방한반대투쟁을 결의해 나선 여건에서 그들과 굳게 연대해서 범국민적인 반부시반미투쟁전선을 형성해야한다. 이와 함께 상전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친미사대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역적들의 기를 꺾어놓아야한다.≫(부시방한반대투쟁과 청년학생들의 자세, 구국의소리 한총련대의원 김수성 2002 2 18)

≪**김현규 :** 그렇죠. 방학기간 청년학생들은 현위치의 여건에 걸맞게 무엇보다도 각계민중 속에 들어가 대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 하나가 열, 백을 깨우쳐야한다고

→

광고

신입생들에게 권고하는
교양서 10선

인생의 선배로서 대학의 선배로서 신입생들의 입학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황금기로 여기는 대학시절이기에 그 운명을 결정하는 신입생시절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대학시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학시절의 길잡이가 되고 인생의 좌표가 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이 신입생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기를 권고하는 교양서적들입니다. 신입생여러분들은 이 열 권의 양서를 정독함으로써 향후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재했던 베트남의 한 여학생이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 나아갔는가를 형상화한 소설. 당시 베트남은 오늘 우리나라와 참으로 많이 닮아있기에 소설 속의 내용이 결코 낯설지 않다. 신입생들은 주인공의 삶과 사랑, 운동을 통해 오늘 어떻게 대학시절을 보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게 될 것이다. 8-90년대 대학생들이 많이 읽은 책.

이북민중의 실생활을 잘 형상화한 단편소설집.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북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은 실정이며 반북편견을 씻어내지 않는 한 진정한 남북화해는 요원하다. 신입생들에게 이 소설은 제도교육의 반북편견을 씻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학생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읽은 책.

봅니다. 홍보활동에서는 주체사상을 각계민중 속에 널리 전파하는데 중점을 두고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방해하는 미국과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의 엄중성과 악결과에 대해 널리 폭로함으로써 그들속에서 내외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기운을 더한층 고조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철폐, 민주화투쟁의 당위성을 대상의 수준과 의식정도에 걸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홍보해야 할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벌이는 생존권쟁취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존권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방학을 맞는 학생들에게, 구국의소리 2002 2 19 – 21)

≪극악한 반통일역적이며 친미사대매국노인 이회창은 미국에까지 찾아가서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반대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매국역적은 미국 고위상전들을 찾아다니며 이북에 대해 변한 것이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진전을 반대했습니다. 뿐 아니라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았습다.

이회창은 미국행각에서 돌아와 국회에서 한 대표연설이라는데서도 이같은 망발을 되풀이했습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이 우심한 이러한 정세하에서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수 없고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남과 북 사이에 여러 갈래로 진행되던 대화들이 중단되고 한반도에 또다시 대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때문인 겁니다.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주적론과 보안법도 통일의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 . .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대중은 생존권사수투쟁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반미투쟁에로 확고히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요로 우리 노동대중의 삶을 비참한 처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도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가져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때 제일 큰 피해자는 우리 민족입니다. 결국 우리 노동대중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노동조건이나 개선하고 임금이나 얼마 더 올리는 문제와는 대비조차 안되는 엄청난 그리고 더 사활적인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노동대중은 모든 투쟁을 반미투쟁에로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당면하게는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극악한 민족반역자인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우리 노동대중이 앞장서야 합니다.

. . .

우리 노동대중은 반이회창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이 땅에서 영원히 매장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주적론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 . .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의지밑에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야 할것입니다.≫(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 구국의소리 2 25 – 2 26)

≪지난달 미국행각에 이어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회창은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해결이니 재래식무기감축이니 전략적 상호주의니 하며 대북비방을 일삼으며 남북관계진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해나섰습니다.

심지어 이회창은 나라가 통일된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있어야 한다는 얼빠진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 민족이 자주와 통일의 새시대로 힘차게 나서고 있는 때에 우익보수세력의 괴수 이회창이 이같은 망언을 늘어놓은 것은 사대역적,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만이 할수 있는 범죄행위로써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 . .

세계가 부쉬의 ≪악의 축≫ 망언을 강력히 규탄배격하고 있는 때에 이회창은 북이 미사일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느니 하며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에 동조해 나섬으로써 사대매국노, 민족의 역적으로써의 더러운 정체를 다시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습니다.

이회창의 최근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발은 이미 대세로 되고 있는 민족의 통일열망에 도전하는 행동이며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짓이 없는 사기할 인간쓰레기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남북사이에 화해와 단합, 조국의 자주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의 지향에 역행해서 대결과 분열, 전쟁을 추구하는 이회창과 같은 역적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게 된다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은 고사하고 우리 민족에게 어떤 후환이 닥쳐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 . .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은 자주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6.15남북공동선언을 거부하고 말살하려는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의 사소한 범죄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짓부수며 그들을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적극 기여해야 할줄로 믿습니다.≫(시대와 민의에 역행하는 우익보수 매장하자, 구국의소리 2 27 – 3 1)

(끝)

하나 민족도 나 —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1)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단위이다. 사람들은 인류사회의 려명기부터 혈연관계를 이루고 씨족, 종족집단을 단위로 하여 생활해왔으며 오랜 력사적 기간을 두고 생활해오는 과정에 형성된 피줄과 언어를 비롯한 지역 및 문화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된 것이 민족(民族)이다. 사람들은 장구한 세월을 두고 민족을 단위로 하여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운명을 개척해왔으며 민족은 그에 소속된 사람들의 운명공동체로 존재하고 발전해왔다. 민족은 그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각이한 계급,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 각자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떼여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민족은 전체이고 계급, 계층은 그 구성부분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운명은 계급, 계층의 운명보다 우위에 놓이며 민족의 운명을 떠나서는 계급, 계층과 각자의 운명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가깝게 바로 우리 민족이 망국의 비운에 처하였을 때 그 성원들의 처지가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일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화를 가져온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에 뒤따른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 의 강압적 체결로 초래된 망국은 고종을 비롯한 왕족으로부터 아래로는 농사짓는 평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운명이 유린되고 조선사람임을 나타내는 제 이름마저 빼앗기는 비운을 겪었던 것이다. 일제의 침략에 협력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가 왕족이든 상기업가이든, 지식인이든 평백성이든 상관없이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수많은 겨레가 낯설은 이국땅에로 류랑의 길에 올랐다. 그후 8.15와 함께 시작된 미국의 식민지 지배로 남조선 땅에서는 이러한 수난의 력사가 계속되었다.

그러면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짓밟히고 조선민족이 식민지 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였는가 하는 것이다. 민족은 운명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개척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개척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운명 개척의 주인은 민족성원 자신들이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힘도 그들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민족의 운명은 그 주인인 민족성원자신의 힘에 의해 개척되여 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민족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는 것이다. 전체 민족이 단합되고 그 힘을 발휘한다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처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조선침략이나 미국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있었음에도 외세의 침략을 차단시키지 못했던 것은 민족의 주체적 력량이 약했던 때문이었다. 의병투쟁이나 독립군 투쟁과 같은 무장투쟁이 조선독립에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도 다 민족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1930년대초에 닻을 올린 조선인민혁명군의 항일혁명투쟁이 마침내 조국광복이라는 영광의 날을 안아올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민족의 주체강화문제를 민족해방의 력사적 대업이 요구하는 높은 단계에서 해결한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대단결을 위한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개하여 통일의 주체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루는 것과 같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의 성공의 열쇠는 전적으로 그 주체의 강화 즉 전민족의 단합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민족대단결은 이와 같이 민족운명개척의 근본방도의 위치에 놓여지는 것으로서 민족문제해결을 전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한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면 그 결집된 힘은 어떤 외세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그 자존과 번영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내일 계속)